

<2015년 10월 18일 주일말씀>

조금만 더 하면 운명이 뒤바뀐다
조금만 더 하면 문제가 답으로 뒤바뀐다
조금만 더 하면 딴 세상이다

본 문 마태복음 25장 21절 (핵심만 봉독)

『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
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』

야고보서 2장 24절

『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』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.

오늘도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니,

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 (*)

◎ 10월과 11월은 ‘한 해의 운명을 좌우하는 달’이며,
계절에 따라서 ‘영적으로도 추수하는 달’입니다.

여러분은 ‘들판에 익은 알곡’ 과 같습니다.

그런데 이 귀한 때에 ‘쥐들’ 이 다니며
‘알곡’ 을 갹아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.

또 ‘의의 재산’ 을 도둑질해 가려 합니다.

이때 더욱 휴거의 차원을 높이며 생명도 구원해야 하는데,
자꾸 쥐들이 막고 방해합니다.

이때 더욱 <자기>를 지키고 <생명>들을 지켜야 됩니다.
그리고 생명들을 구원해야 됩니다.

- ◎ 고로 10월에는 ‘때에 맞게 받은 말씀’ 을 써서
즉시 보내어 급히 정리하게 하고,
주일에도 수요일에도 그 말씀을 바로 전해 주고 있습니다.

앞으로 ‘연말’ 까지 계속 그렇게 하면서,
섭리사 전체의 영적 방향을 삼위께 맞추며 이끌 것입니다.

그러니 10월과 11월에는
<주일에배>뿐 아니라 <수요일에배>도 더욱 신경을 쓰면서,
말씀을 귀히 전하고 귀히 듣고 행하며
그 어느 때보다 근신하며 잘 보내야 되겠습니다.

- ◎ 오늘 말씀의 주제는

‘조금만 더 하면 운명이 뒤바뀐다.

조금만 더 하면 문제가 답으로 뒤바뀐다.

조금만 더 하면 딴 세상이다.’ 입니다.

- ◎ 먼저 오늘 말씀을 받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고,
핵심 요지를 말해 주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●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.

“<열심히 하는 자들>과 <열심히 못 하는 자들>이 있습니다.

<열심히 못 하는 자들>은 <열심히 하는 자들>과 차이가 너무 커서 이끌어 주려면 엄청난 관리가 필요합니다.

어떻게 하면 <잘하는 자들>과 <못하는 자들>이 한 팀이 되어 할 수 있겠습니까?”

하고 그 방법을 간구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.

●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.

“<잘하여 상을 얻는 자>와

<상을 못 얻는 자>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.

조금의 차이다.

<못하는 자들>도 조금만 더 뛰고 조금만 더 잘하면

잘하는 자들과 같은 상을 받게 되고 같이 성공한다.” 하셨습니다.

● 그 말씀을 듣고, 이 문제를 놓고 다시 기도하며 말하기를

“제가 직접 본 바로는 그렇지 않은데요.

제가 직접 본 것을 가지고 말할 테니, 저와 대화해요.” 했습니다.

그랬더니 “그리해라.” 하셨습니다.

●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다.

“실제로는 <잘하는 사람>과 <못하는 사람>의 차이는

<큰 산>과 <평지>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.

이것은 제가 직접 보고 안 것이고,
온 세상 사람들 모두 그렇게 알고 살고 있습니다.”

- ◎ 내 말을 듣고,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
그 말씀을 쫓~ 들어 보겠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<하나님 말씀>

- ◆ 네 인식관으로 보고 들은 대로 말하지 말고, 나와 이야기해 보자.

<사람의 생각>으로 판단하는 것이 ‘인본주의’ 이고,
<신의 생각>으로 판단하는 것이 ‘신본주의’ 다.

- ◆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도 내 말을 들어 보아라.
나와 변론하자.

네가 세상 사람들의 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판단하는지 보자.

나는 무력으로 네 말을 꺾지 않겠다.

네가 내 말을 듣고 인정하는 것만 해도 나는 너를 이긴다.

- ◆ 너는 <잘하는 자>와 <못하는 자>의 차이가 크다 하고,
나는 그 차이가 작다고 했다.

이 말씀을 듣는 자들도 나와 같이 생각하겠구나.

그러니 <너>는 ‘그들의 선생’ 이지, ‘나의 선생’ 은 아니다.

- ◆ 나 여호와가 말을 얼마나 실수 없이 잘하는지 알아라.
내 말을 들어 보아라.

* 이 부분은 설명하듯 잘 대언하면서, 밑줄 친 부분은 보다 강하게 전하기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1>

- ◆ 올림픽 때 100m 경주에서
<금메달을 딴 자>와 <은메달을 딴 자>의 차이를 보자.

<금메달을 딴 자>가 <은메달을 딴 자>보다
엄청나게 큰 차이로 이기느냐.

30cm로 차이로 이기고, 한 뼘 차이로 이기고,
어느 때는 발을 앞으로 쪽 내밀어서 먼저 결승선을 넘어
2등과 0.1초도 차이가 안 나게 이겨 1등을 하기도 한다.

이런 상황을 10년, 20년씩 봐 오지 않았느냐. <끝>

- ◆ 이와 같이 너희도 <열심히 뛰고 달리며 잘하는 자들>과
<못하는 자들>의 차이도 ‘조금’ 이다.

너희는 <잘하는 자>와 <못하는 자>의 차이를
엄청나게 크게 보지만, 그것은 너희 인식관이다.

- ◆ 나 여호와와는 ‘인생들 밤낮의 삶’ 을 다 보고 총합하여 계산한다.

그렇게 계산하면 <잘하는 자들>과 <못하는 자들>의 차이는
조금의 차이다.

그러니 <못하는 자들>도 조금만 더 뛰고 조금만 더 행해라.

그러면 ‘같은 금메달’ 이 된다.

그리함으로 운명이 뒤바뀐다. 딴 세상이 된다. (하셨습니다. 아멘?)

(* 아주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전하기.)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2>

◆ 미인 대회에서 1등과 2등의 차이도 조금의 차이다.

그것도 심사위원들의 기준에서 뽑으니,
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시 뽑아 보라고 하면
1등과 2등의 순위가 바뀌기도 한다.

왜 그러하겠느냐. ‘조금의 차이’ 이기에 그러하다. <끝>

◆ 그러니 자기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고, 조금만 더 하여라.
그러면 ‘같은 사랑 미인’ 이 된다.

◆ <잘하는 자>와 <못하는 자>의 차이는 조금이다. 잘 모를 정도다.

그러니 너희는 오늘부터 『나도 금메달 딸 수 있어!』 하고,
희망을 걸고 해라.

◆ 모두 나 여호와의 말을 이해했느냐. (아멘!) 그럼 행해라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
하나님은 몇 마디를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.

인생들의 밤과 낮의 삶을 다 살피시고 판단하시는
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 볼까요? (아멘!)

(* 역시 설명하듯 잘 대언하면서, 밑줄 친 부분은 보다 강하게 전하기.)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3>

- ◆ 하나의 사과나무에서 <가장 크고 예쁜 사과>를 따고,
<그다음으로 크고 예쁜 사과>를 따서
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아라.

그 사과가 그 사과다.

사과를 딸 때 안 본 사람에게

“어떤 사과가 제일 예쁘냐?” 하면 “똑같아요.” 한다.

다만 “이 사과가 제일 예쁘다.” 라고 말해 왔기에
그렇게 인식되어서 그 사과가 더 돋보이면서
더 크고 예쁘게 보이는 것이다.

<크기와 예쁘기의 차이>는 ‘백지장 차이’ 다.

- ◆ <금메달 사과>와 <은메달 사과>의 차이는 조금의 차이이지만,
그렇게 ‘딱지’ 를 붙여 놓으니 <금메달 사과>가 돋보이는 것이다.

그렇지 않느냐? (아멘!) <끝>

(* 아주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전하기.)

◎ 또 다음 말을 들어 보자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4>

- ◆ 한 여자는 키가 179cm이고, 다른 한 여자는 177cm다.
179cm의 여자를 보면 ‘으앗! 크다!’ 한다.

둘이 서 있으면 179cm의 여자는 엄청 크게 보이고,
177cm의 여자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.

그러나 실제로는 ‘성인 손가락 한 마디 차이’ 다.
모두 손가락 한 마디를 보아라. 별 차이가 없다.

- ◆ 너희도 이와 같다.

조금만 더 뛰고 더 행하면
3차원에서 4차원으로 오르게 되고,
‘으앗! 엄청나다!’ 하는 말이 나오게 된다.

그런데 신앙의 삶도, 사랑의 삶도, 휴거의 삶도,
기도도, 전도도, 관리도, 충성도 ‘조금만 더’ 안 하려느냐. <끝>

- ◆ 키 2cm 정도는 <목>을 쪽 빼고 <허리>를 곧게 세우면 올라간다.

지금, 앉은 상태에서 <목>을 쪽 빼고 <허리>를 곧게 세워 보라.
그러면 2cm씩 커진다.

다 성장되어서 키가 더 커진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,
이런 방법으로 하면 ‘불가능한 문제가 해결’ 된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5>

- ◆ 이와 같이 <자기 마음과 생각>을 쫓~ 쫓기만 해도
신앙의 차원이 높아져서 딴 세상이 되고,
<휴거 380선>에 있던 자가 <400선>에 오른다.

<380선>과 <400선>은 ‘딴 세상’ 이다.

<삼위가 대하는 것>도 달라지고 <주는 것>도 달라진다. <끝>

- ◆ 고로! 조금 더 행하고, 조금 더 노력하고, 조금 더 열을 내라.
그리함으로 ‘금메달’ 을 따고, ‘금딱지’ 를 달아라.

너희는 영이 <천국 황금성>에서 살고 있고,

또 황금성으로 갈 자들인데

<육>도 ‘금메달’ 을 따고 ‘금딱지’ 를 달아야 하지 않겠냐.

- ◆ 조금 더 행하면 <운명>이 뒤바뀌고,
문제가 <답>으로 뒤바뀌고, <딴 세상>이 된다.

(* 아주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전하기.)

- ◆ 국가의 운명도 ‘조금의 차이’ 로
<전쟁>이나, <평화>냐가 좌우된다.

- ◆ 하늘 반대편으로 간 자들도 ‘조금만 더’ 했으면 안 갔다.
그 ‘조금’ 으로 운명이 세상으로 기울었으니 얼마나 억울하냐.

조금 더 노력하고, 조금 더 행하고, 조금 더 잘해서
<휴거>도 되고 <천국>에도 오는 것이다.

- ◆ <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능력>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.

그 능력이 어떻게 나오겠느냐? (잠시 쉬었다가) 해라!
하면! 그 능력이 ‘자기 몸과 생각’ 에서 나온다.

왜 자기에게 ‘잘할 수 있는 자료’ 가 있는데도 안 해서
운명이 안 좋은 쪽으로 기울게 하느냐.

- ◆ 죽을 자도 조금만 잘하면 다 산다.
신앙의 죽음도 육신의 죽음도 그러하니라.

- ◆ 우리가 ‘많이’ 잘해야만 운명이 바뀐다면,
나 여호와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.

모두 ‘조금만’ 잘하면 <황금 신앙>이 되고,
사탄이나 악평자들에게 잡혀 가지 않는다.

왜 ‘조금 더 못 해서’ 운명이 뒤바뀌어
나 여호와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하는 사탄에게 가느냐.

- ◆ 나의 계시를 듣고 조금만 더 하면
나 여호와가 볼 때 그리도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보인다.

(하고, 말씀해 주셨습니다.)

<전환>

- ◎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,
이어서 <이에 대한 생명의 잠언>을 받았습니다.

하나님께서 조금 더 하여 엄청나게 크라고
우리에게 ‘선물로 주신 잠언’ 입니다.

◎ 지금부터 그 <잠언>을 ‘설교’로 해 주겠습니다.
들으면, 더 확실히 이해하고 힘을 얻을 것입니다.

◆ 눈·코·입이 큰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큼니다.
(몇 mm 차이일 뿐이다. : 생방송 설교자 보충 설명)
그런데 ‘그 조금의 차이’가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.

얼굴도 그렇습니다.

얼굴이 크다고 해서 ‘두 배’ 크지는 않습니다.

섭리사에 <얼굴 큰 사람>이 있다고 해서
<얼굴이 작은 사람>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제로 재 봤습니다.

양쪽 1cm 차이였습니다.

근데 보이기는 엄청나게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.

운동장도 90m는 작게 보입니다.

10m만 더 넓히면 전체가 아주 크게 보입니다.

여기에 폭이 75m이면, 정식 축구장이 됩니다.

이와 같이 모두, 조금만 더 하면
더 높은 차원에 올라서 엄청나게 높게 보입니다.

◆ 춤을 출 때도 ‘조금 더’ 움직이면 동작이 커 보입니다.
똑같이 춤을 추는데도 더 잘 추게 보입니다.

허리를 꼿꼿이 세우면 조금 더 커 보이고,

자세가 좋으니 몸이 곧아 보이고 자신감에 차 보입니다.

이와 같이 <마음과 생각의 허리를 펴고 활동하는 사람>은 크게 보입니다.

- ◆ 조금 작는데, 전체가 엄청나게 작아 보입니다.
조금 큰데, 전체가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.
- ◆ 1cm는 성인의 손가락 한 마디도 안 되는 길이입니다.
그런데 옷이나 신발은 1cm만 작아도 못 입고 못 신습니다.
행여 입고 신는다 해도 불편하고 아픕니다.
거기서 **조금 더** 커지면 입기도 편하고 신기도 편합니다.

<신앙>도 그러합니다.

조금 더 안 뛰니 불편하고, 조금 더 뛰니 편해집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6>

- ◆ 글씨도 그러합니다.
(한글 '아'자 보여 주고, 알파벳 'p'를 보여 준다.)
여기서 글씨의 점이 3mm만 짧아도 다른 글씨로 보입니다.
(‘아’자에서 ‘-’가 3mm 짧아진다. ‘이’로 보인다.
‘p’에서 ‘|’가 3mm 짧아진다. ‘o’로 보인다.)
조금의 차이인데,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. <끝>
- ◆ 과일도 야채도 조금 더 큰데 눈에 확 띄고 돋보입니다.
실상 얼마 차이가 안 나고, 무게도 비슷합니다.
그러나 <아주 조금 더 큰 것>이 돋보여서 그것을 삽니다.
- ◆ 식당에서 음식이 나올 때도 그렇습니다.

똑같은 음식을 시켰는데,
옆 사람의 것이 더 많아 보이고 커 보이지요?

실상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. (생방송 설교자 보충 설명)

- ◆ 물건을 살 때 돈을 조금 더 주면, 더 좋은 물건을 삽니다.

그래서 물건을 더 좋게 만들어 놓고 돈을 더 받습니다.
이런 상술로 더 좋은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.

- ◆ <엄청나게 더 하는 것>은 누구든지 못 합니다.
그러나 <조금 더 하는 것>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.

왜 뒤처지게 됩니까?

한 번에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.

조금씩 서서히 뒤처지다가 완전히 낙오된 것입니다.

조금씩 안 하다가 뒤에서 사는 것입니다.

- ◆ **조금 덜 해서**

눈에 거슬리고 못하는 사람, 게으른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.

조금 더 해서

눈에 띄고 잘하는 사람, 부지런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.

많이 행하여 많이 얻고 많이 누리라고 했지요?

<매일 조금 더 하는 자>가 결국 많이 얻고 많이 누리게 됩니다.

- ◆ 기도도, 회개도, 찬양도, 전도도, 관리도 조금 더 하면
운명이 뒤바뀝니다. 문제가 답이 됩니다. 딴 세상이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조금만 더 하면 ‘인간 한계선’까지는 만들 수 있고, 도달할 수 있고, 해낼 수 있습니다.
- ◆ <휴거>도 조금만 더 하면, 아직 휴거되지 않는 자가 휴거됩니다.
조금만 더 하면, <휴거 선>이 높아져 딴 세상이 됩니다.
<완전과 완성의 답>은 ‘조금 더 하는 것’입니다.

- ◆ 똑같은 사과나무에서 <제일 좋은 사과>를 따고,
<그다음에 좋은 사과>를 따서 보세요. (아까 화면으로 봤지요?)
별 차이가 없습니다.

이와 같이 <사람>도 그러합니다.

이 사람과 저 사람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.

<잘하는 사람>도 조금 못 하면 떨어지고,

<못하는 사람>도 조금 더 잘하면 올라갑니다.

사람은 모두 귀합니다.

<제일 위에 있는 사람>과

<그다음에 있는 사람>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.

그런데 <그 밑에 있는 사람>에 비하면

<그 위에 있는 사람>이 그리도 크고 좋게 보입니다.

- ◆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

“<보다 잘하는 자>와 <보다 못하는 자>는 큰 차이가 없으니,

<그다음에 있는 자>도 귀히 쓰고 사명을 주어라.

모두 자기는 부족하다고 자포자기하지 말아라.

모두 나의 삶과 뼈다.” 하셨습니다.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.

“<합격자>와 <불합격자>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느냐.
실상은 큰 차이가 없다.

<불합격자>라고 함부로 보고 막 대하지 말아라.

다음에 합격하든지,

다음에 또 떨어졌어도 다른 것을 해서 성공하기도 한다.

<사람>은 모두 귀하니, 차이를 두지 말고 대해라.”

- ◆ 많은 사람들 중에서

<이 사람>에게는 사람들이 잘 따르고

<저 사람>에게는 사람들이 안 따릅니다.

사람들이 잘 따르는 비밀이 무엇일까요?

<말과 행실>이 조금 더 좋고,

조금 더 잘 대해 주기 때문입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7>

- ◆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,

눈이나 코나 입을 ‘조금 더 크게’ 그려 보세요.

그리고 목이나 다리를 ‘조금 더 길게’ 그려 보세요.

조금 더 크고 긴데, <전체의 구조>가 확~ 달라 보입니다. <끝>

- ◆ 경매를 할 때도 ‘돈을 조금 더 높게 쓴 사람’ 이 자기 것으로 차지하게 됩니다.

- ◆ 흔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
‘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,
왜 저 사람은 잘되고 나는 잘 안 되나?’ 합니다.

잘된 사람은 ‘하나’ 라도 더 했기 때문입니다.

- ◆ 사람을 뽑을 때도 확인하지 않고 대충 보니,
<조금의 차이>를 알지 못하고
이 사람이 조금 더 나은데도 안 뽑고 안 씁니다.

지혜자는 <조금의 차이>를 알고 뽑아서 씁니다.

그러나 사람들은 ‘뽑힌 자’ 를 보고,
엄청나게 잘하고 큰 차이가 있어서 뽑힌 줄 압니다.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.

“사람을 뽑을 때, 혹여나 ‘차이’ 가 나더라도 썬라.

하다 보면 금방 잘하게 된다.

조금씩 더 하다 보면 유능하게 된다.

그러니 모두에게 사명을 주고 썬라.”

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.

“조금 더 큰 것이 그리도 빛나 보이고 커 보인다.

그러니 조금 더 해라. 그러면 뽀한다.”

<잠시 쉬었다가>

- ◎ 조금 더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,
모두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듣고 있지요?

조금만 더 하면 운명이 뒤바뀝니다.

문제가 답이 됩니다.

땀 세상이 됩니다.

조금 더 말씀하겠습니다.

- ◆ 사람은 **조금 더 노력하고 행해서**
성공하여 고생하지 않고 희망으로 살고,
조금 더 노력하지 않고 행하지 않아서
힘들게 고생하며 살아갑니다.

<육의 삶>도 그러하고, <영의 삶, 신앙의 삶>도 그러합니다.

- ◆ <자기 육>이 조금만 더 뛰고 열심히 하면
3차원에서 4차원으로 가고, 4차원에서 5차원으로 갑니다.

그러나 조금 더 안 뛰고 안 하니

1년 내내 ‘395선, 398선’에 멈추어

그 차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
<그 영>이 보다 보다 답답하니까 천국 황금성에서 내려와

<자기 육>에게 쫓아가서 말합니다.

“내 육아. 너 조금 더 편해서 뭐하려고 하나.

그렇게 사니, <육>은 편한테 <마음>은 괴롭지?
일어나! 때가 있어!”

하며 자기 육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다닙니다.

그러면서 “조금만 더 하자!” 합니다.

- ◆ <필요성>을 모르고 <귀한 것>을 모르면, 놀면서도 안 합니다.

인생 몰라서 못 삽니다.

그러다 <육의 청춘>이 ‘관 속’에 들어가게 됩니다.
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8>

- ◆ <어떤 영>은 ‘빛 쪽’으로 10cm를 더 못 와서
사탄의 손에 허리 끝이 잡혀서 ‘사망’으로 끌려갑니다.

<육>이 조금 더 편하려다가
<영>이 갖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.

그러니 <육>도 갖은 고통에 짜증입니다.

- ◆ 꿈에 자기 혼 주위를 빙빙 도는 사람 같은 자가 있는데,
그가 곧 ‘사탄’입니다.

그 사탄이 늘 방해하러 다닙니다.

왜 그냥 둥니까?

<육>이 5분만 기도해도 확인할 것도 없이
성령의 검, 말씀의 검이 사탄의 눈에 쏘여 사탄이 달아납니다. <끝>

- ◆ 비열한 사탄은 낮에도 항상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,
우리에게 ‘약점’이 있으면 착 달라붙어서
갖은 미친 짓을 합니다.

그러니 수시로 기도하기 바랍니다!

기도하면, 사탄은 절대 물러갑니다!

- ◆ 어떤 사람은 <사탄>이 ‘남자’나 ‘여자’를 쓰고
이성으로 유혹하는데, 알면서도 따라잡니다.

목사인데도 그러합니다.

그런 자들은 다시 신학을 하고 조건을 세우고 복직해야 됩니다.

- ◆ 이성으로 찢는 남자들은
자기 요구를 안 들어주면 섭리사를 나가겠다고 합니다.

여자들은 마음이 약하니, 그 말을 들어줍니다.

엄청나게 애를 써도 휴거 복직이 어려운데,
그 아까운 몸을 내주고 회개합니다.

어리석은 여자들입니다.

섭리사를 나간다고 하면 “나가라!” 하지,
왜 그 말을 들어줍니까?

사탄이 ‘남자’를 쓰고 들어와서 섭리사를 나간다고 하니,
얼마나 좋은 일입니까?

사탄이 섭리사를 나가겠다는 말입니다.

고로 “나가라!” 하면, 그때 사탄이 나가고 이깁니다.

- ◆ <이성>을 이기면 <사탄>을 이긴 것입니다.
<사탄>은 ‘이성’을 쓰고 들어옵니다.

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못 이긴 사탄을 이겨야
<휴거>되고 <천국>에 갑니다.

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못 한 사랑의 기준은 세워 줘야
<복직>됩니다.

이 두 가지를 못 했는데
<천국 황금성>에 가거나 <복직>된 자는 없습니다.

- ◆ <하나님의 역사>도 그러합니다.

과거 구시대 역사에서 못 한 기준을 세워야
<새 시대의 주인>이 되어 새 시대를 이끌고 갑니다.

과거 구시대 기성보다 더 나은 말씀을 받지 못하고
과거 구시대 기성보다 더 나은 조건을 세우지 않고서
새 역사를 편 일은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.
하나님의 법에도 없는 일입니다.

- ◆ <시대 말씀>을 어떻게 받겠습니까?

<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>을 세우면서 받습니다.

그냥 건물이 지어집니까? 행하면서 지어야 됩니다.
그렇지 않으면 ‘망상 건물, 환상 건물’입니다.

<이 시대 말씀>은
<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>을 세우면서 받은 말씀입니다.

망상이 아닌 실제이며, 고로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!

- ◆ <새 역사>로 와서 <시대 말씀>을 듣고
그 말씀에 <조건>을 세우지 않고
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
자기 심리가 편해지는 신앙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.

고로 <육>이 죽으면 <영>도 무(無)로 사라집니다.

<말씀 마무리>

◎ 말씀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.

- ◆ 완전히 해야 보장됩니다.

조금 더 노력하고 행하면서 ‘완전’ 해지고
<휴거>도 <천국 황금성>도 ‘보장’ 받는 것입니다.

- ◆ <눈으로 보는 것>과 <실체>는 다릅니다.
별도 ‘빛’ 으로 보이고 ‘5각’ 으로 보이지만,

실제 모양은 그렇지 않습니다.

어떤 별은 모양이 ‘산맥’ 같이 보이지만
실제로는 ‘호박 넝쿨’ 같습니다.

- ◆ <자기 생각>과
<자기 육이 그동안 행하여 영이 변화된 것>은 다릅니다.

고로 <자기 혼>도 확인하고,

<자기 영>도 어느 정도 변화됐는지 확인하고,
<자기 영>을 못 보면 ‘혼’을 통해 확인하고,
<자기 육>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지 매일 확인해야
휴거가 보장된 영이 되어
육도 영도 ‘진짜 휴거의 삶’을 살게 됩니다.

- ◆ <자기 상상, 추측>은 <실제>와 다릅니다.

<사진>과 <실물>이 다르지요?

<자기 생각>과 <실제>가 같은지 확인하고,
<실제>가 더 좋은지, 더 나쁜지 확인해야 됩니다.

<확인>이 ‘신’입니다.

- ◆ 사람은 자기가 유익한 대로 생각이 돌아갑니다.

고로 자기가 좋게 인식하니 좋게 생각합니다.

그러나 <실제>는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 많습니다.

한 달 동안 운동하면 살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지요?

그러나 한 달 후에 몸무게를 확인해 봐요. 별로 안 빠졌습니다.

<생각>과 <실제>는 다릅니다.

기도할 때도 ‘이만하면 시간이 많이 갔겠지?’ 생각했는데,

실제로 시계를 확인해 보면 다르지요?

그런데 주위가 조용해질 때까지 기도하고

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나면,

실제로 시간이 많이 가 있습니다.

<영의 변화>도 그러합니다.

<육>이 많이 해야 <영>이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.

많이 하려면, 조금씩 더 하면 됩니다.

조금 더 하다 보면, 많이 해 놓게 됩니다.

그러니 조금 더 노력하고 행하면서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.

그래야 <영>이 기대만큼 변화되어 있습니다.

◆ 그리고 성령과도 매일 통하면서 살아요.

매일 성령과 통하면서 물어보면 가르쳐 주십니다.

그런데 노력도 안 하고, 안 하려고 합니다.

행어나 ‘자기 주관’ 으로 흐를까 봐 안 하는 것입니까?

자기 주관으로 흐르면 어때요?

<자기 주관의 단계>를 넘어서 조금 더 기도하면서 물으면,

성령과 통하게 되어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?

◆ 시간에 인색하게 성령님을 대하지 말고,

진정으로 대하기 바랍니다.

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돕기 위해 쫓아다니십니다.

그러니 성령님을 진정으로 대하며 통하기 바랍니다.

계시받는 사람들도

성령님께 조금 더 간구하여 차원을 높여 계시를 받습니다.

◆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.

“<실체 시대>다. <실체 시대>다.

실제로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하고자 해라.

때 놓치면, 평생 기회가 안 오기도 한다.

지금 이 할 때다. 하면!! 기회를 안 놓친다.

지금 이때 완전의 답, 완성의 답, 변화의 답, 휴거의 답은

조금 더 참고, 조금 더 노력하고,

조금 더 열을 내고, 조금 더 행하는 것이다.

◎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주제를 외쳐 보면서 마치겠습니다.

<자막> 조금만 더 하면 <운명>이 뒤바뀐다.

조금만 더 하면 문제가 <답>으로 뒤바뀐다.

조금만 더 하면 <판 세상>이다.

◎ 수요일에 ‘따끈한 말씀’ 을 가지고 만나요!